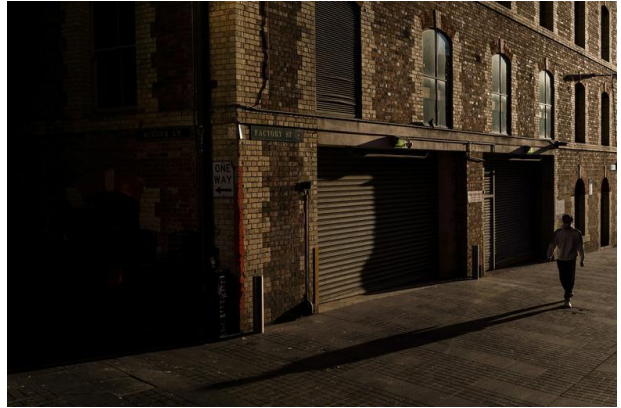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中 재정지출 가속화 전망..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
 - ◇ (초점)-성장률도 인플레이도..갈수록 힘 싹리는 한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 ◇ (초점)-서학개미 투자 열풍 멎었..서울 한시 입지 떨어지나
 - ◇ (달러/원 월간 전망)-단기 고점은 확인..美 FOMC 경계, 中 불확실성, 주식자금 관건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외출제한 조치가 내려진 호주 시드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한산한 거리를 걷고 있다. (로이터/로렌 엘리어트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9월3일 증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57.0	1.1%	-6.1%	+6.5%	유로	1.1882	0.8%	-2.7%	+8.9%
100엔 대비	1,051.6	0.5%	0.0%	+1.1%	엔	109.73	0.1%	-5.9%	+5.2%
유로 대비	1,371.5	-0.2%	-3.3%	-2.3%	위안	6.4561	0.4%	1.1%	+6.7%
위안 대비	178.87	0.3%	-7.0%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5,369.09	-0.2%	15.6%	+7.2%
코스피	3,201.06	2.1%	11.4%	+30.8%	나스닥	15,363.52	1.5%	19.2%	+43.6%
코스닥	1,053.85	3.0%	8.8%	+44.6%	S&P500	4,535.43	0.6%	20.7%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70.90	3.4%	1.3%	+19.8%
국고채 3Y	1.437%	2.9bp	46.1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696%	2.9bp	36.1bp	-14.5bp	미국채 2Y	0.208%	-1.1bp	8.7bp	-144.0bp
국고채 10Y	1.943%	0.4bp	23.0bp	+3.0bp	미국채 10Y	1.326%	1.5bp	41.4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9.29	0.8%	42.8%	-20.5%	한국 5Y	17.8bp	-0.2bp	-4.1bp	+0.1bp
금(현물)	1,826.19	0.5%	-3.7%	+25.0%	일본 5Y	17.6bp	0.1bp	2.6bp	-4.5bp
TR상품지수	2,968.39	-1.1%	10.8%	+7.8%	중국 5Y	32.9bp	-1.5bp	4.8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9월 6일(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7일(화)>

- 금감원, 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 한은, 7월 국제수지(잠정)(08:00)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 기재부, 1차관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10:00)
- KDI 경제동향(12:00)

<8일(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 한은, 8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9일(목)>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7:30), 1차관 브리핑(13:30)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12:00)

<10일(금)>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0:00)
- 금융위, 위원장 금융지주회장 간담회(14:30)
- 한은, 8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9월 6일(월)>

- 유로존 9월 섹스지수 (17:30)
- 미국, 캐나다 휴장

<7일(화)>

- 중국 8월 수출입 · 외환보유고
- 일본 7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8월 외환보유고 (08:50)
- RBA,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13:30)
- 일본 7월 경기 동행 · 선행지수 (14:00)
- 유로존 2분기 GDP 수정치 (18:00)
- 미국 8월 고용추이 (23:00)

<8일(수)>

- 일본 8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7월 경상수지 (08:50)
- 일본 2분기 GDP 수정치 (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발표 (23:00)

<9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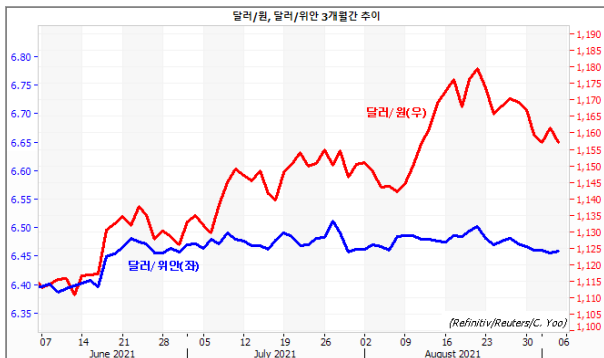
-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03:00)
- 미국 7월 소비자신용 (04:00)
- 중국 8월 PPI · CPI (10:30)
- ECB 정책이사회 금리 결정 발표(20:45) · 기자회견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10일(금)>

- 미국 8월 PPI (21:30)
- 미국 7월 도매재고 수정치 · 도매판매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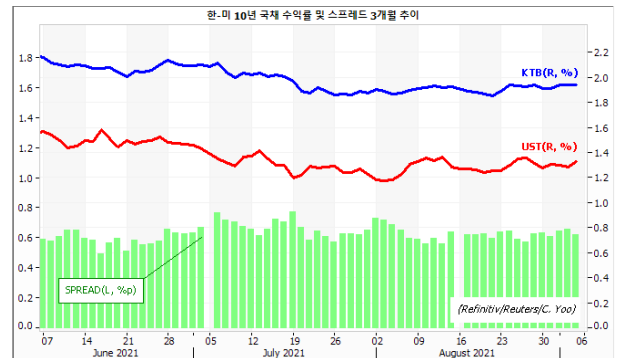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투자 심리와 약 달러 지속 여부를 살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 박스권 하단 탐색에 나설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45-1165 원이다.
- 8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은 '쇼크'라는 해석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 다만 예상보다 저조한 취업자 수와는 달리 8월 미국 실업률은 17개월 최저치인 5.2%로 전망치에 부합했고,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보다 0.6% 올라 7월의 0.4%보다 상승세가 확대됐다.
- 이 결과에 증시는 혼조, 달러는 약세, 그리고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1.3%대로 상승했다.
- 자산시장별 반응 또한 제각각인 점을 볼 때 국내외 금융시장이 명확한 테마 아래 일관되게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는 잠시 접어줘야 할 듯하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중 예정된 다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크게 조명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이지북도 관심이다.
- 아울러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따른 유로 향방도 관심사다. 최근 약달러 흐름이 유로 강세로 인한 반작용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호주중앙은행 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다. 기준금리 유지 전망이 우세하지만 테이퍼링 계획 연기 여부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 달러/원 환율은 이런 대외 정책 이벤트 결과 이후 달러에 영향받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 박스권 하단 탐색 과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수급이 최근 들어 양방향 균형 상태로 돌아왔지만 단단한 달러 매수세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있다. 그렇다 보니 약달러 전제 없이 환율이 저점을 찾기에 적극적이기는 힘들 수 있겠다.

<채권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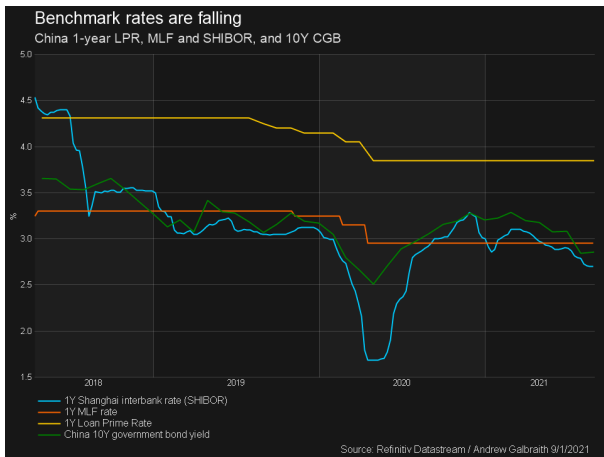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 영향 따라 움직이겠으며 변동성도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국내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 한국은행은 분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9일 발표한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크게 모았던 8월 고용지표가 지난 주말 '쇼크' 수준으로 부진한 가운데 시장은 이번 주 주요 인사들의 연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9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채권매입 프로그램 축소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3% 올라 10년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 그 외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도 각각 7일과 8일 통화정책 회의를 가진다. 호주 또한 거센 델타 변이 확산세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최근 국내외 할 것 없이 높은 물가 상승압력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9일과 10일에는 중국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 미국 생산자물가가 각각 발표된다.
-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3년물 2.2조원 및 2년물 8500억원 규모 발행 경쟁입찰을 6일과 7일 각각 진행한다. 50년물 3500억원 입찰도 9일 예정되어 있다.

(그래프/분석)-中 재정지출 가속화 전망..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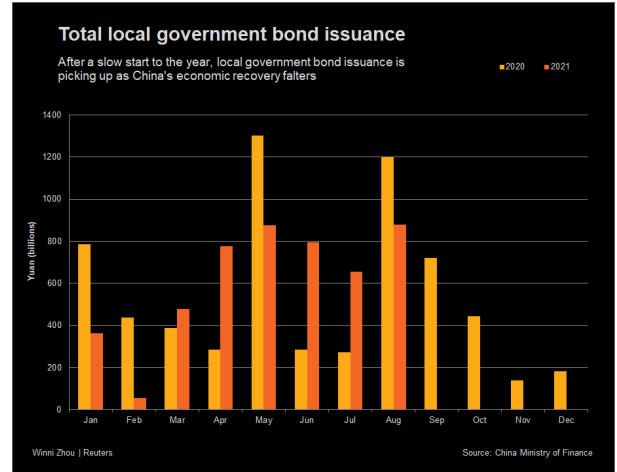
상하이, 9월 02일 (로이터) - 중국은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재정 지출과 대출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기에 투자자들은 완화 정책이 매우 선별적으로 이뤄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한 차례 더 인하해 연말까지 유동성 부족분을 만회할 것이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시장 수익률이 충분히 낮기에 굳이 정책금리를 인하해 미국과의 정책 스탠스 격차를 벌리며 자본 유출을 감수하리라 예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아이리스 팡 ING 중화권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방 정부 채권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면, 정부는 채권 수익률을 낮추려 할 것"이라며 4분기 기준율이 50bp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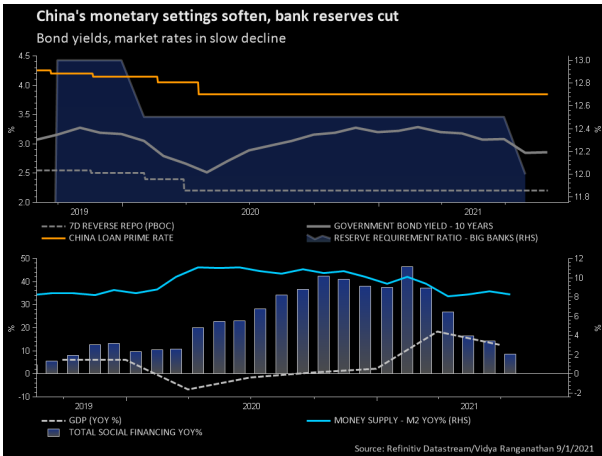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중국은 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하반기 더 많은 하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투자자들은 지방 정부가 자금조달 지원을 가속화해 신용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덩 샹 중화권 및 북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중국 정부가 경제 상승 가능성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하방 리스크 억제에 더 중점을 두면서 2022년 5~6%대 성장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정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통화 정책은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연례 회의에서 특수목적채권 3조 6500 억위안을 포함한 총 4조 4700 억위안(6921 억달러) 규모의 신규 지방 정부 채권 발행 쿼터를 승인한 바 있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지방 정부 채권 공급 규모가 9월 1 조위안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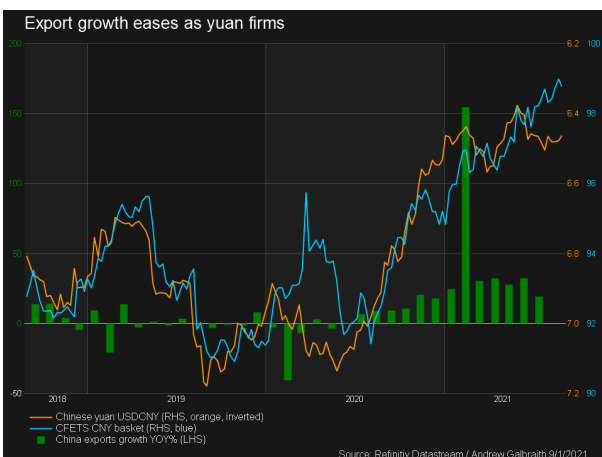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올 한 해 동안 완화적 바이어스로 유동성 여건이 충분하게 유지돼 채권 공급 증가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대규모 만기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중앙정치국이 거시경제 정책의 장기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며 '과주기(cross-cyclical)' 정책 조정을 촉구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결정권자들은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속에서 위안의 양방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당국이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연준이 양적완화 부양 프로그램을 종료했을 당시 위안 가치는 달러 대비 급락한 바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성장률도 인플레이도..갈수록 힘 실리는 한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서울, 9월 2일 (로이터) 이지훈 기자 - 경제 성장률은 물론 성장 내용에서부터 인플레이션까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내년 인상 전망을 연내로 앞당기는 해외 투자은행들이 느는 등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전망 수정에 머뭇거리던 해외 IB들이 하나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기대가 미미했던 10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경제지표와 당국자 발언 주목

2일 오전 연달아 전해진 주요 경제지표와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은 일제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상화를 지지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행은 2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8%로 속도치 0.7%보다 0.1%p 상향 수정됐다고 밝혔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 올라 5분기 연속 상승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6% 상승해 로이터 조사 시장 전망 2.3%를 크게 뛰어넘었다. 작년 기저효과 소멸에도 연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5개월째 한국은행 목표를 상회했다.

특히,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3% 올라 2018년 6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요 촉물가 상승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최근 중앙은행 진단을 뒷받침했다.

이날 아침 한 행사 축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중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4차 대유행은 경제 회복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반복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중심으로 2분기 경기 회복의 힘이 당초보다 강했음을 보여줬다"면서 "금년 4.2% 성장을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 전망 수정 조심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앞서 델타변이가 주요 변수로 부각되자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렸었다.

당시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연내 기준인상 횟수에 대해서는 응답자 22명 중에 1회가 14명으로, 2회 8명보다 많았다.

이런 가운데 나온 금통위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해외 기관들은 향후 전망 수정에 머뭇거리고 있는 분위기였다. 이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 기조가 이전보다는 누그러진 인상을 남긴 영향이었다.

하지만, 이날 경제지표 발표 이후 해외 기관들 사이에서도 시각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앞서 좀 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ING와 ANZ는 이날 배포한 보고서에서 각각 10월,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증대했다고 기존 전망에 변화를 줬다.

ING는 "8월 근원 물가 상승과 서비스업을 포함해 품목 전반에 걸친 상방 압력이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ANZ 역시 '강한 수요측 상방 압력'을 근거로 꼽았지만, "경제활동 재개, 중국 경제 안정화 등과 관련한 경기 불확실성에 올해 10월 인상 가능성은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부터 8월 및 11월 인상을 전망해온 바클레이즈는 "한국 인플레이션은 5월 정점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저효과를 제거한 물가 상승률은 5월 1.71%, 7월 1.85%, 8월 2.4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11월 인플레이션 전망을 또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연내 두 차례 인상 전망을 제시해 온 노무라도 "한국은행은 10월 통화정책 회의에

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최소 '호키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점)-서학개미 투자 열풍 멎었..서울 환시 입지 떨어지나

서울, 9월 3일 (로이터) 박예나·이지훈 기자 -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보여줬던 뜨거운 매수 확대 열기는 확연히 사그라져서 배경과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수익률 쫓기에 여념이 없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한 해 역대 최대인 200억달러 상당의 해외주식을 순매수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새로운 수급 변수로까지 등극했다.

개인들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월간 최대 규모인 52억달러를 순매수했지만, 이후 순매수를 점차 줄이더니 5월 들어서는 소폭 순매도하기도 했다. 그 뒤 다시 순매수 기조는 회복했으나 규모는 10억달러 내외에 머물고 있다.

▲ 살 만큼 샀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월별 개인 해외 주식 순매수는 1월 52억달러, 2월 32억달러, 3월 30억달러, 4월 23억달러로 서서히 줄다 5월에는 0.5억달러 순매도를 기록했다. 그러다 6월 3억달러, 7월 11억달러, 8월 4억달러 순매수로 증가폭이 제한됐다.

2일(현지시간) S&P500 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연간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활황에도 개인 투자 열풍이 주춤해진 데는 과거보다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정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수익률 기준으로 미국 주식 전망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투자할 사람들은 다 투자하고 신규 유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들의 해외 주식은 환율, 거래세 등에 장기투자 측면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67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금융투자협회 통계 기준 개인 투자자 예탁금은 작년 약 40조원 급증한 뒤 올해 들어서는 증가분이 5조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대형 공모주 청약 열풍이 일었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서울 유가증권시장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이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조 단위 공모가 연달아 이어졌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38.6조원 늘었는데, 이에 대해 한은은 대형 공모주 청약으로 인한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추세는 유효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급증 추세는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 투자 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재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 규제 등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전제적인 매수 여력이 줄어들었다. 한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규모 자체는 7-8조원대에서 8월 5조원대로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 개인들의 월간 평균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8.6조원 상당인데 지난달에는 5.5조원으로 월별로 두 번째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

해외 주식 쪽으로 개인 뭉치돈이 들어오는 추세는 완화됨에 따라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이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개인 해외 투자가 추세로 자리 잡고 연기금 등의 해외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한 이와 관련한 수급 영향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개인뿐만 아니라 연기금 투자 등을 감안하면 수급상 달러 매수 요건이 이전보다 커졌다. 해외 투자 관련 수급의 시장 위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달러/원 월간 전망)-단기 고점은 확인..美 FOMC 경제, 中 불확실성, 외인 주식자금 관건

서울, 9월 1일 (로이터) 박예나·이지훈 기자 - 단기 고점 확인 인식 속에 이달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되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경계와 중국 시장 우려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이 국내 외환시장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월 예상 환율 범위는 1142-1177원(평균)으로 집계됐다. 8월 마지막 종가는 1159.0원이었다.

지난달 달러/원 환율은 월간 9.2원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때 외국인의 반도체 주식 투매에 1181원 선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단기 고점을 확인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전문가 14명 중 2명만이 이달 예상 범위 상단을 1180원보다 높게 제시했다.

지난달 말 잭슨홀 연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 이후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최근 테이퍼링 우려 완화에도 중국의 경기 둔화 및 규제 관련 우려는 신흥시장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부양책 가능성 등도 주요 변수로 꼽혔다.

수급상으로는 무엇보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 진정 또는 추세 반전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달 외국인은 월간 6.24조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환율 변동성을 대폭 자극했다.

이달 순매도 규모는 공매도 금지조치 종료 영향이 작용했던 지난 5월 8.49조원에 이어 코로나 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컸다.

로이터가 정리한 전문가별 코멘트:

▲ 김장욱 팀장 (신한은행)

"9월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회의에서 광범위한 지표를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되

는데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다면 환율은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1160 원대에서 주로 거래 될 것으로 본다. 거시적 측면에서 크게 흔들릴 변수도 없는 데다 워드 코로나 여건이 마련된다면 달러/원 상단이 막히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예상 거래 범위: 1155-1175 원

▲ 서창조 과장 (우리은행)

"중국 경기 불확실성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미-중 갈등 지속,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세 지속,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으로 달러화 강세 전망한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적 스탠스 유지, 국내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델타 변이 확산세 감소 기대감 등으로 달러/원 상승폭 제한을 예상한다."

예상 거래 범위: 1140-1170 원

▲ 조영복 차장 (중국공상은행)

"8월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세로 달러/원 환율이 급등했지만, 미국의 완만한 금리 정책으로 일부 되돌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어느 정도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 리스크 온 흐름에 달러/원 환율이 일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중국도 최근 규제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조치로 시장에 안도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 불안감은 유지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워드 코로나 전략이 바로 진행될 수 없는 국내적 상황도 원화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달러/원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된 가운데 레인지 인식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거래 범위: 1130-1180 원

▲ 고규연 팀장 (하나은행)

"각국 금리 이벤트 소화 후 고용지표 대기 모드로 들어갈 것 같다. 테이퍼링과 금리는 별개라는 스탠스로 지표가 중요해 보인다. 고용지표가 전달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좋게 나오더라도 이번 달은 분기말 및 추석 네고가 대기할 것으로 보여 전달 기록했던 연고점인 1180 원은 강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쪽으로는 상승시 기록했던 지지선들이 준비하다. 전저점 1155 원과 1140 원

이 일·이차 지지선으로 9월은 달러/원 상단이 무거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거래 범위: 1140-1175 원

▲ 이응주 차장 (DGB 대구은행)

"달러/원이 8월중 일시적으로 1180 원을 넘어선 것으로 단기 고점은 확인한 것 같다. 향후 1200 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만약 또 한 차례 상승한다면 현재의 급등을 야기했던 요인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일 것이다. 광범위한 달러 강세 이유였던 테이퍼링 우려는 잭슨홀에서 연내 실시라는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금리 인상 여부는 별개임을 강조함에 따라 당장의 불확실성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월 의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연준 매파들과의 의견 차이는 향후 회의에서 고용 상황과 델타 확산 추이 등을 반영해 좀 더 좁혀야 달러 강세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달러/원 급등의 또 다른 큰 축인 외인 역송금은 예단할 수는 없으나, 반도체 관련 대형주의 매도세가 일단락되어야 할 것이다. 점증하는 중국 규제 관련 경기둔화 우려의 여파도 향후 달러/원의 방향성에 있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예상 거래 범위: 1150-1180 원

▲ 김동욱 팀장 (KB 국민은행)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에도 구체적 시기와 계획 등이 발표되지 않아 시장은 안도했다. 하지만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연준의 정례 회의가 변수다. 경제 전망과 점도표 변화가 예상되는데, 점도표에서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사될 수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은 긴축에 대한 우려,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9월 환율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8월과 유사한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예상 거래 범위: 1140-1180 원

▲ 노기성 대리 (KDB 산업은행)

"크게 미국 테이퍼링과 중국 경제가 두 축이 될 전망이다. 잭슨홀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연내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파월 의장은 언급했지만, 얼마나 빠르게 할지는 미정인 상태다. 테이퍼링 관련 강달

러 재료를 기본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기준을 인하 등의 유동성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중국 경제지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상 거래 범위: 1145-1185 원

▲ 성혜미 과장 (NH 농협은행)

"9월 FOMC 회의에서의 테이퍼링 계획 및 점도표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세,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 지속, 중국 정부의 민간기업 규제 등은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분기말을 맞이한 네고물량 출회나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은 하락 요인이다. 8월 급등한 환율이 다소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1120 ~ 1180 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상 거래 범위: 1120-1180 원

▲ 김동영 팀장 (미래에셋증권)

"미국 테이퍼링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달러 강세 추세가 특히 백신 보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 잭슨홀을 기점으로 예상보다 도비시한 파월의 스탠스로 인해 단기 고점은 본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1130, 1140 원대까지 하락 가능성 있지만 9월 고용 및 연준 회의가 예정돼 아래를 기점으로 월말 반등이 예상된다."

예상 거래 범위: 1120-1170 원

▲ 하건형 연구원 (신한금융투자)

"국내 코로나 재확산 및 생산 차질로 인한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 등은 정점을 지나면서 달러/원 환율의 상방 압력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9월 FOMC를 앞두고 양호한 미국 고용 경기가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감을 자극할 수 있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1100 원 중반 중심의 박스권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한다."

예상 거래 범위: 1140-1180 원

▲ 김유미 연구원 (키움증권)

"잭슨홀 회의 이후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달러는 약보합권 등락이 전망되는

만큼, 달러/원 환율도 1100 원 중반에서 주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거래 범위: 1155-1175 원

▲ 문홍철 파트장 (DB 금융투자)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달러 강세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 델타 변이 안정세, 유로존의 통화정책이 매패적으로 변할 가능성,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스탠스에 의해 달러/원 환율이 기술적으로 1150 원까지 반락할 가능성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수출 둔화, 연준 테이퍼링, 한국 긴축 흐름 속에 상대 성장이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 흐름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월은 미국 부채 및 재정과 관련해 주요 이벤트 불확실성이 커서 시나리오에 따라 달러가 큰 폭 강세로 돌변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상 거래 범위: 1150-1190 원

▲ 권아민 연구원 (NH 투자증권)

"주요국 심리 지표와 환율은 여전히 백신과 코로나 영향에 있다. 선진국은 백신 접종률은 물론, 백신에 대한 신뢰도도 신흥국 대비 높다. 이에 서비스 중심의 소비 개선 전망이 최근 신흥국 수출의 피크아웃 우려를 가중시켜 신흥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8월말 잭슨홀 회의 이후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완화됐고, 이에 최근 원화 약세폭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함께 3분기말부터는 원화 등 신흥 통화의 순환적인 반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7월 초 중국의 기준을 인하를 비롯해 최근 통화상황지수가 반락하며 완화적 기조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중국 경제지표 개선은 신흥국 통화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예상 거래 범위: 1153-1165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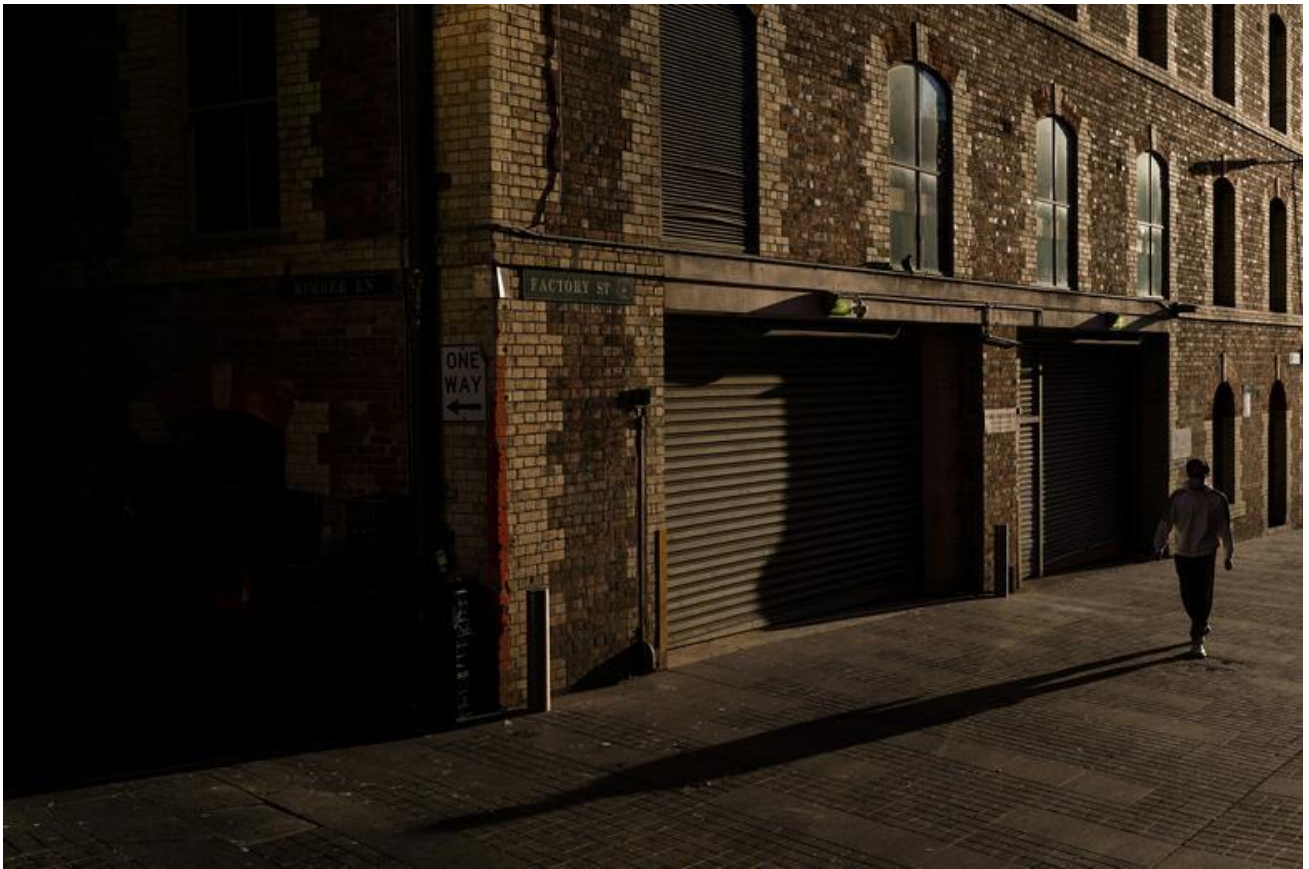
▲ 안영진 연구원 (SK 증권)

"6월 중순 이후 약 3개월을 내달린 달러화가 9월에는 숨 고르기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피크아웃 우려, 중국의 경기둔화 및 규제 관련 리스크, 9월 FOMC에서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테이퍼링 일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상존한다. 하지만 시장 내 악재로 상당 부분 반영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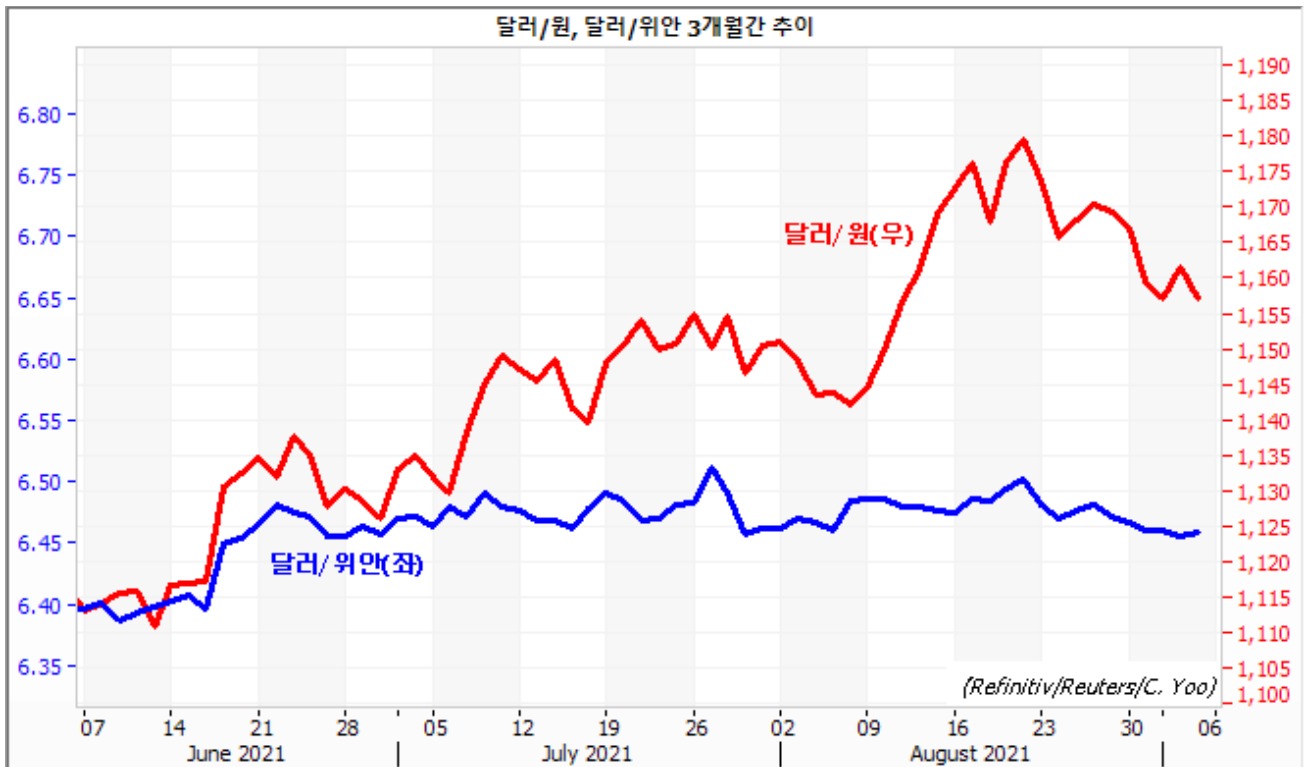
던 부분이기도 하다. 달러화 예상 경로를 고려할 때 달러/원 환율은 1150 원대 하단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상 거래 범위: 1150-117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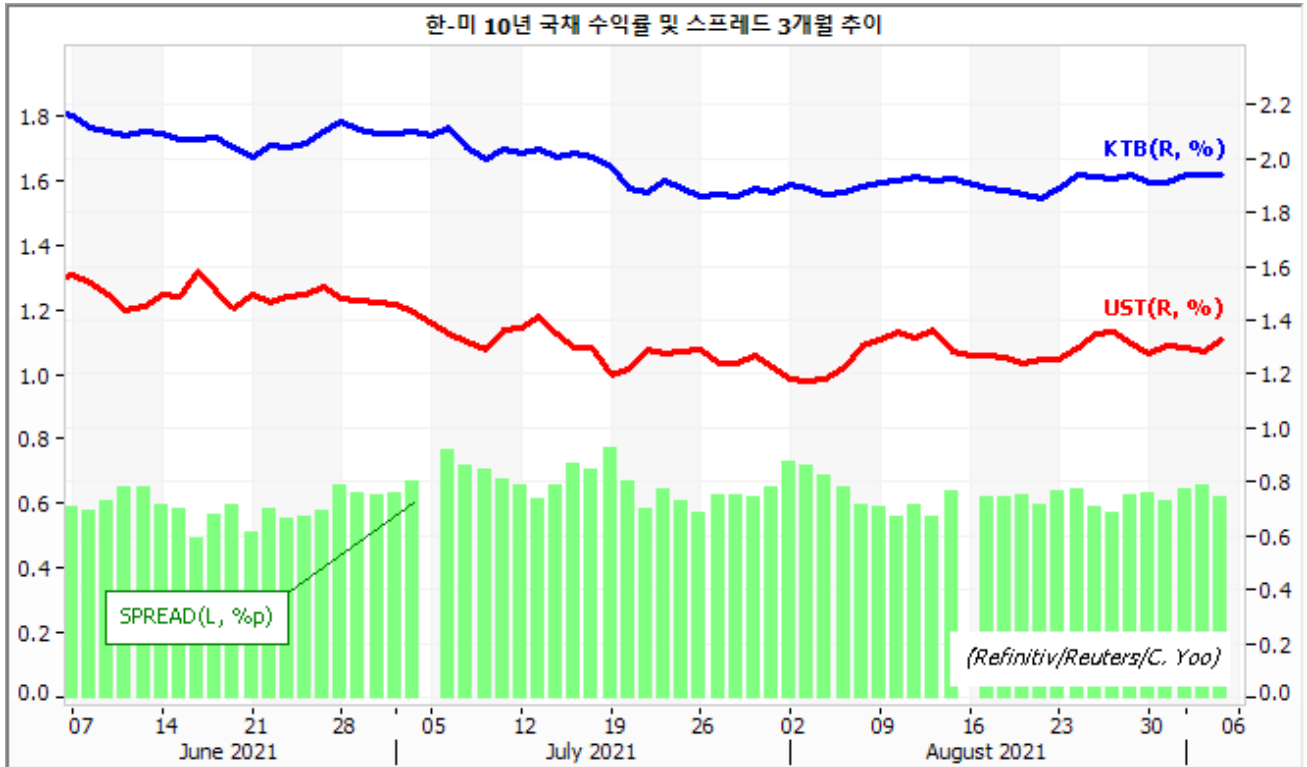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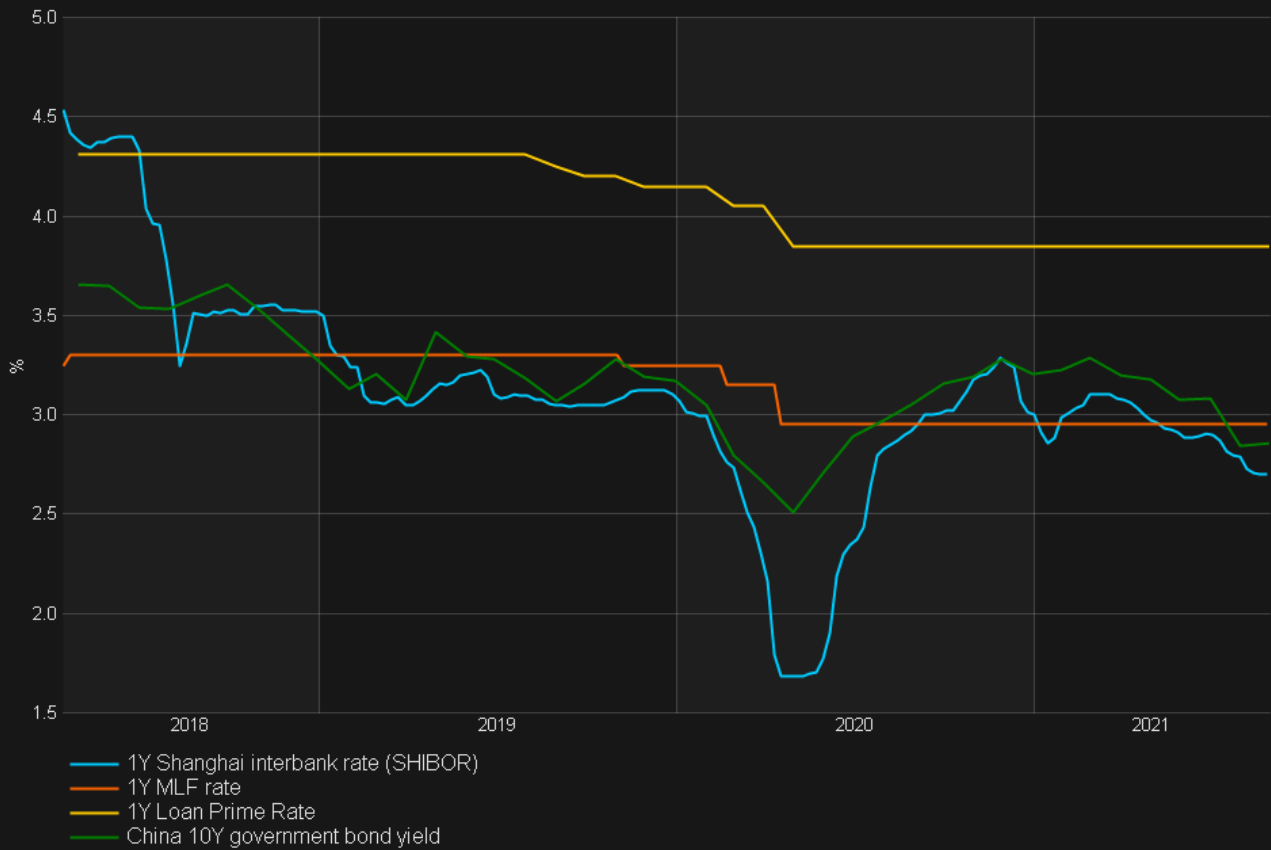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Benchmark rates are falling

China 1-year LPR, MLF and SHIBOR, and 10Y CG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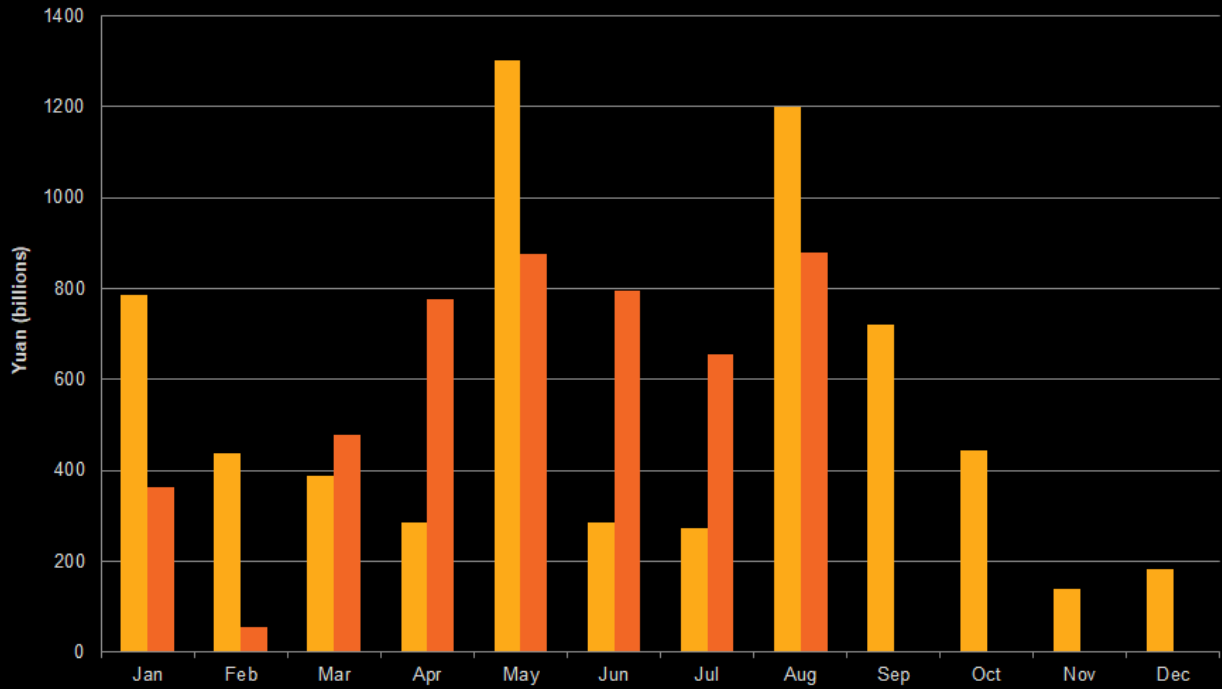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Andrew Galbraith 9/1/2021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Total local government bond issuance

After a slow start to the year, local government bond issuance is picking up as China's economic recovery falters

■ 2020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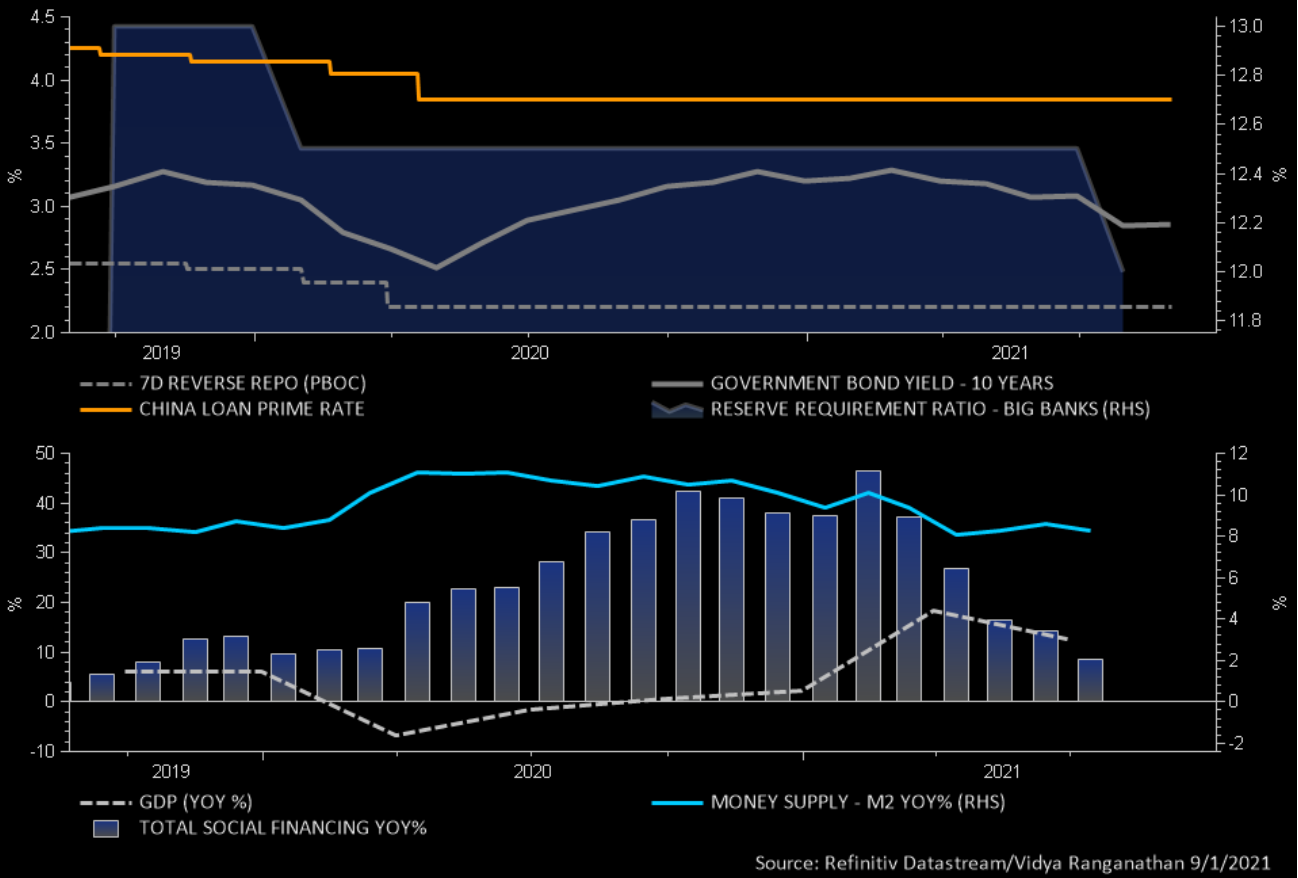
Winni Zhou | Reuters

Source: China Ministry of Financ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hina's monetary settings soften, bank reserves cut

Bond yields, market rates in slow declin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Export growth eases as yuan firms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Andrew Galbraith 9/1/2021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